2. 증례 B

1977년 11월 21일 간헐적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본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입원한 환자로서 이물 제거가 용이치 않아 기관지절개술과 두차례에 걸친 기관지경술을 시행한 끝에 이물 제거에 성공한 예로서 우측 주기관지에서 약 4.9 cm×0.3 cm 크기의 뭇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폐렴 발생으로 약 5일간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3. 증례 C

1977년 12월 19일 간헐적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이물 진단하에 기관지경술을 실시하기로 예정하였으나 특이한 증상이 없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이물 제거가 늦어진 예이다. 기관지경술하에 우측 주 기관지로부터 약 2.0 cm×0.8 cm 크기의 피리를 제거하였다.

6. 식도 및 기도이물의 임상통계학적 고찰

중앙의과대학

정해영 · 권평중 · 박성준 · 민양기 · 김중환

식도 및 기도이물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이며 특히 기도이물은 단시간내에 치명적일 경우가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저자들은 1968년 6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최근 9년 10개월간 본원에 내원하였던 95례의 식도 및 기도이물 환자들을 임상통계학적으로 분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식도 및 기도이물환자는 총 95례로서 식도이물이 89례(93.7%), 기도이물이 6례(6.3%)였으며 그 비는 14.8 : 1이었다.

2. 성별비에서는 64례(67.4%)가 남자였고, 31례(32.6%)가 여자로서 그 비는 2.1 : 1이었다.

3. 식도 및 기도이물을 종류별로 보면 식도이물에서는 주화, 바둑돌, 돌의 순서로 많았고, 기도에서는 땅콩 및 콩종류가 가장 많았다.

4. 연령별로는 5세이하가 64례(67.4%)였으며 특히 주화는 5세이하가 52례(92.9%)였다.

육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물은 10세이하에서 발생하였다.

5. 년도별 및 월별분포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볼 수는 없었으나 최근 2년간 그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6. 식도 및 기도이물의 발생부위를 보면 식도이물은 제 1협착부에서 70례(78.7%)로 가장 많았으며, 육류는 제 2협착부에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에서 상혼협착을 동반한 경우였었다.

기도이물의 부위별 빈도는 기관지가 가장 많았으며 3 : 2로 우측에 많았다.

7. 이물의 체류기간은 1일 이내인 경우가 50례(52.6%)로 가장 많았고 한달이상 경과한 후 내원한 경우도 3례가 있었다.

8. 식도이물은 국소마취하에 83례(93.3%)는 식도경을 통하여 제거하였으나 6례(6.7%)는 제거하지 못하였다.

기도이물 6례는 모두 기관지경을 통하여 제거하였으며 이중 5세이하의 5례는 기관절개공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7. 食道 및 氣道異物의 統計的 考察(第五報)

延世醫大

金基鈴 · 洪元杓 · 李萬膺 · 李廷權

식도 및 기도이물은 때때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이물종류와 발생빈도 등에서도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본 교실에서는 이러한 이물의 실태와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이미 4차에 걸친 식도 및 기도이물 통계를 보고한 바 있거니와 이제 다시 제 5 보로서 1973년 1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만 5년간에 걸쳐서 치험한 186례의 이물을 대상으로 통계적 관찰을 실시하여 유념할 만한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8. Ventilating bronchoscopy로 治癒試圖된 氣道異物의 治療成果

서울의대

禹勳永 · 高健成 · 李熙培
尹泰鉉 · 安會英 · 白萬基

食道異物은 耳鼻咽喉科 領域에서 應急을 要하는 경우로서 診斷 및 治療가 지체되면 豫期치 않은 불행한 事態가 일어날 수 있다.

著者들은 1975年부터 1977年까지 3年間 本院에서 試圖된 50例의 氣道異物에 대해 考察하였다.

1. 男女比는 2.8 : 1이었다.

2. 年齡은 3個月부터 52세 사이였으며, 1세부터 5세까지가 58%로 가장 많았다.

3. 主症狀은 咳嗽; 68%, 呼吸困難; 52%, 靑色症; 18% 順이었다.

4. 氣道異物 診斷時 病歷이 確實한 경우는 66%이었다.

처음 誤診率은 28% 이었으며 그中 57.1%가 上氣道感炎으로 因한 誤診이었다.

5. 처음 來院時 聽診上 呼吸音 減少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喘息音이 24%, 正常이 26%이었다.

放射線 檢査上 肺氣腫이 82%, 肺不全擴張이 20%이었으며, 正常範圍가 18%이었다.

6. 來院까지의 期間은 24時間以內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년반 이었다.

來院後 除去까지의 期間은 24時間 以內가 68%이며 가장 오래 걸린 例는 9日이었다.

7. 治療는 氣管切開한 경우가 24%로 그 中 75%가 植物性 氣道異物이었다.

Ventilating bronchoscopy로 治癒된 경우는 72%이었으며, 自然排出된 경우가 8%, 氣管切開瘻으로 自然排出된 경우가 6%, 開胸術로 治癒된 경우가 6%, 그外 死亡, 喉頭直達鏡, 氣管直達鏡에 의한 除去가 각각 2%이었다.

8. 氣道異物의 종류는 植物性 46%, 金屬性 28%, 프라스틱 18%, 動物뼈 8%이었다.

9. 異物의 所在는 氣管 16% 右側氣管支 52%, 左側氣管支 28%, 未詳 4%이었다.

9. 氣管支內視鏡下에 施行한 組織生檢에 對한 考察

서울醫大

高健成 · 柳章烈 · 朴奭根
趙泰權 · 盧寬澤 · 金弘基

1968年 Ikeda가 처음으로 flexible fiberoptic bronchoscope를 소개한 후 기관지경의 利用은 急速히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氣管支鏡檢査中에 診斷을 目的으로 하는 組織生檢도 빈번히 施行하게 되었다.

著者등은 1976年 6月부터 1978年 1月까지 施行한 233例의 氣管支鏡檢査中 組織生檢을 施行한 71例를 分析觀察한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20個月간 의뢰된 233例의 氣管支鏡檢査中 組織生檢이 必要했던 경우는 30.5%인 71例이었다.

2. 組織生檢이 必要했던 71例의 主訴는 咳嗽(17例), 呼吸困難(16例), 喀痰(15例) 등이 全體의 60%를 차지하며 胸痛, 喀血의 順이었다.

3. 組織生檢의 部位는 右上葉氣管支가 21.1%로 제일 많았고, 左主氣管支, 左上葉氣管支, 右主氣管支, 左下葉氣管支등의 順이었다.

4. 組織生檢이 必要했던 71例의 原因疾患은 肺癌이 80%(57例), 結核이 15%(11例), 惡性中皮腫, 炭粉症, 麴菌症(aspergillosis)등이 各 1例이었다.

5. 肺癌이 生檢結果 확진된 것은 57例中 36例로 63%의 診斷率을 보였다.

6. 肺癌으로 確診된 36例의 病理學的 所見은 扁平上皮癌이 64%(25例), anaplastic 25%(9例), 腺癌과 分類할 수 없는 것이 各 1例이었다.

7. 71例中 氣管支造影術을 한 例는 51%인 36例이었으며, 그 時期는 氣管支鏡檢査前에 施行한 것이 1/4, 後에 施行한 것이 3/4이었다.

8. 71例中 76%(54例)에서, 細胞診斷學 檢査를 併行하였으며, 이 結果는 PAP class Ⅴ가 15%, class Ⅳ가 7.5%, class Ⅲ가 1.8%이었다.

10. 耳鼻咽喉科外來에서 施行한 喉頭組織生檢 142例의 臨床統計的 考察

서울의대

高健成 · 柳章烈 · 黃淳宰
林尙爀 · 朴賢秀 · 白萬器

喉頭疾患은 早期診斷 및 治療에 依하여 그 豫後가 크게 左右되며 確診을 爲하여는 組織生檢이 必須的이다.

著者들은 喉頭疾患의 早期診斷에 도움이 되고자 1973年부터 1975年까지 3年間 서울醫大附屬病院 耳鼻咽喉科外來에서 間接喉頭鏡, 또는 喉頭直達鏡下에 喉頭組織生檢을 施行한 142例에 對하여 臨床統計的 分析考察을 施行하였으며,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組織生檢例는 總 124例이었으며, 男子 109例(76.8%), 女子 33例(23.2%)이었다. 男女比는 3.3 : 1이었다.

2. 年齡別로는 50代, 60代가 각각 41例(28.8%)로 가장 많았으며, 40代(19.7%), 30代(11.2%)의 順이었다. 50代, 60代의 男女比는 각각 7 : 1, 6 : 1이었다.

3. 主訴는 嗄聲이 127例(89.4%)로 가장 많았으며, 嚥下困難이 7例(4.9%)였고 기타 咽喉痛、呼吸困難 등이었다. 嗄聲의 發生부터 來院까지의 期間은 平均 8.1

All of the foreign bodies of the air passages (6 cases) were removed by bronchoscopy. Among them, 5 cases under 5 years old were removed by inferior bronchoscopy through tracheostomy site.

7. A statistical Survey of ForeignBodies in Air and Food Passage (Report V)

Gill Ryoung Kim, M.D., **Won Pyo Hong**, M.D., **Man Eung Lee**, M.D. and **Jeung Gweon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oreign bodies in esophagus and tracheobronchus should be sometimes treated with emergency and are used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ment disease in otolaryngologic field.

Interestingly, variety of the incidence and object of foreign bodies have been showed as being changed the mode of life pattern and civilization.

Our department had already reported the statistical survey at first in 1954, successively in 1992, 1963 and 1968,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ge, sex, variety of foreign bodies, location and duration of the lodgement.

Now, we have experienced the new 186 cases during the consecutive 5 year period from January 1973 to December 1977 and reported as a 5th report comparing with previous reports.

8. The Result of Ventilating Bronchoscopy for the Air Way Foreign Bodies

Hun Young Woo, M.D., **Keun Sung Koh**, M.D., **Hee Bae Lee**, M.D., **Tae Hyeon Youn**, M.D., **Hwoe Young Ahn**, M.D., **Man Kee Paik**, M.D.

Departmena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cul National University

The foreign bodies in air way require the emergent managements in the otolaryngologic field, and i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were delayed, unexperted catastrophic situations may occur.

The authors had analysed the airway foreign bodies of 50 cases which had been ventilating bronchoscopy.

1. In sex distribution, male to female ratio was 2.8 : 1.
2. In the age incidence, 58% were 1~5 yrs.
3. Frequent symptoms, were coughing (68%), dyspnea (52%) and cyanosis (18%) in the oder.
4. The significant foreign body histories were noticed in 33 cases (66%). The initial misdignosis were 28%, and of which 57.1% were URI
5. In auscultation, decreased breathing sounds were noticed in 46%, wheezing were 24% and 26% were with in normal limit.
6. In duration of lodgement, 68% were removed within 24 hours.
7. Tracheostomy were performed in 24%, and foreign bodies were removed by ventilating bronchoscope in 72%.
8. The foreign bodies were vegetable (46%), metal (28%), plastic (18%) and fish bone (8%).
9. The prevalent site of foreign body were right main bronchus, left main bronchus, and trachea in the order mentioned.

9. Clinical Analysis of Tissue Biopsy Under Fiberoptic Bronchoscopy

Keun Sung Koh, M.D., **Jang Yuorl Yoo**, M.D., **Seok Keun Park**, M.D., **Tae Kwon Cho**, M.D', **Kwan Taek Noh**,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Ikeda introduced flexible fiberoptic bronchoscope in 1968, use of bronchoscopy was expanded rapidly.

Wide use of flexible bronchoscopy enabled us to get tissue diagnosis with more ease and safety. Authors analyzed 71 cases of tissue biopsy of 233 bronchoscopies from June '76 to Jan. '78 and concluded as following :

1. 233 bronchoscopies of 20 Month duration, cases which needed tissue biopsy were 71 cases (30.5%).
2. Chief complaints of above cases are coughing, dyspnea, sputum, chest pain, hemoptysis in fre-